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October 5, 2017 Vol. 596

나성제일교회의 50년 역사 가운데 함께 했던 이들

은혜로 달려온 반세기 "일어나라 제일의 용사여!"

나성제일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려

나성제일교회(김문수 담임목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50년사 화보 출판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김문수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성제일교회의 50주년 역사는 수많은 목회자의 눈물과 기도, 헌신으로 가능했다"며 "이제는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50주년 이후 역사를 귀한 성도들과 함께 세워감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문수 담임목사의 인도로 드린 이날 예배에서는 성재성 장로의 대표기도 후 김철원 원로목사가 "격려의 사람(행4:36-37)"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초대교회 바나바처럼 서로가 믿어주며,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인간의 유익과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했다.

출판위원장 이대근 장로의 50년사 소개에 이어 김재연 목사의 축시를 이연주 목사가 대독 후, 조희서 목사(서울씨티교회 담임)가 축사를 전했다. 조 목사는 "50년이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초창기부터 헌신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의 교회가 50주년을 맞은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연 안수집사가 김문수 담임목사에게 50년사 화보를 헌정한 후, 유철목 집사와 김혜원 성도의 축가 후 정윤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앞서 1부와 2부 주일예배는 칼빈대학교 전 총장인 김재연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故 조천일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할 당시, 집사였던 김재연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현 나성제일교회 예배당을 구입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킨 기적을 간증하며 큰 은혜를 선사했다.

미성대학교 제13회 후원의 밤 개최한다

미성대학교(류종길 총장)가 제13회 후원의 밤 및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거행한다.

오는 10월 22일(주일) 오후 5시 부에나팍 홀리데이인(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에서 열리는 이 행사를 통해 미성대학교는 학교 사역과 발전 상황을 후원자들에게 소개하고 기도와 후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이사회(김광렬 이사장)가 주관한다.

학교 측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미성대학교가 평소 대학을 위해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을 정중히 초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323-643-0301

GMU 리더십들이 이번 세미나를 소개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병구 박사 원장, 최규남 총장, 김현완 교무처장, (뒷줄) 제임스 구 행정처장, 이창수 CFO

선교적 관점에서 종교개혁 의미는?

〈새롭게 변화하는 현대 선교 이슈들〉 세미나

남가주에서 가장 선교적인 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기념 특별세미나를 "새롭게 변화하는 현대 선교 이슈들"이란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들은 남가주에서 내로라 하는 학자들로 구성됐다. 11월 13일(월)에는 이상훈 박사가 "선교적 교회," 20일(월)에는 박기호 박사가 "한국 선교 운동 과제," 27일(월)에는 이광길 박사가 "선교적 리더십 개발," 12월 6일(수)에는 조나단 강 박사가 "선교사 멤버 케어," 11일(월)에는 최규남 총장이 "종교개혁이 미친 선교 역사"란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의가 이뤄지며 이 강의는 GMU 선교학 박사 과정 학생들에겐 정식 학점으로 인정되는 수준 높은 강의이지만 학교 측은 남가주 교계를 섬기고자 선교관심자라면 누구에게나 개방한다. 점심식사와 교재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 총 50달러다. 10월 30일까지 등록을 받으며 714-525-0088(황의성 목사)로 전화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9월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규남 총장은 "주님은 지상명령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세계선교인데 새롭게 변화하는 현대 선교 이슈들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선교 동력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GMU는 예장 국제총회 소속 신학교로 선교사 양성을 위해 1995년 설립됐다. 졸업생의 40%가 선교사로 파송될 정도로 선교 지향적이다. 현재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이 운영 중이며 신학 관련 학위를 인준하는 TRACS, ABHE, ATS 등 3대 기관의 인가를 모두 갖추고 있다. 하나님의 일꾼 양성을 목표로 학비 자체도 저렴하지만 다양한 장학 혜택과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도 GMU의 장점이다.

특히 최근 ATS의 인가를 획득한 선교학 박사(D.Miss.) 과정은 수준 높은 강의와 저렴한 학비 외에도 전체 학비의 40% 장학 혜택, 전 과정의 50% 온라인 수업을 내세우며 전 세계 한국인 선교사 2만7천명의 재교육을 책임지겠다는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과정은 이번 학기에 신입생 20여 명이 등록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준형 기자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Olympic Blvd / Oxford Ave / Serrano Ave / Pico Blvd
■Brake Service ■Tune-Ups ■Computer Diagnostic
■전기계통 ■10K Service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5-3180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할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 1일)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국가방위군 제8사단에 의무여단이 창설됐다.

美 국가방위군 제8사단 의무여단 창설

한방 우수성 미군들에게 알릴 것

미국 국가방위군(USNDC) 제8사단(사단장 임기수 준장) 의무여단 창설 기념식이 지난 29일 오후 제이제이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제8사단 측은 "미 방위군 역사상 최초로 의무여단이 창설되었다"면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시와 각종 테러와 재난 재해시 커뮤니티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임기수 사단장은 "제8사단 내 의무여단 창설을 축하한다"면서 "한방의 우수성을 미군 부대에 알리고, 한방 치료 봉사와 함께 한방 군의관 양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 국가방위군의 한인타운 지부인 제8사단은 2011년 3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한인들을 주축으로 창설됐으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테러와 재난시에 커뮤니티 봉사에 헌신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최학량 목사의 개회기도, 임기수 사단장의 인사, LA 총영사관 민재훈 영사의 격려사, 박상원 대령의 제8사단 소개, 정시우 대령과 하워드 리 대령, 최남수 대령, 양학봉 한의사협회장의 축사, 신임 회원증서 수여 순으로 이어졌다.

미 국가방위군은 엄격한 기준과 자격 요건을 갖춘 예비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4시간의 훈련을 통해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다.

문의) 213-700-6100

eagle.usndc@gmail.com

"우리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세요"

과거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위탁가정 설명회가 열렸던 모습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조)가 위탁가정이나 입양에 관심있는 한인들을 위한 '둥지찾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한국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열리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위탁부모가 되기 원하거나 둥지찾기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위탁가정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 조건과 필요한 교육과정,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위탁부모는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아이가 머물 수 있는 방을 제공할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20시간 교육과정 등을 거쳐 자격을 갖추게 된다. 20시간 한국어 교육과정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이재인 둥지찾기 프로그램 매니저는 "2017년부터는 36시간이었던 교육과정이 20시간으로 줄어들어 위탁가정이 되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거쳐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면서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리는 한국어 오리엔테이션에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탁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LA 카운티에는 평균 3만5000명의 아이들이 친부모와 살 수 없어 아동보호국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중 아시안은 680여명, 한국계는 60~100명 가량된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2014년 위탁가정 프로그램인 '둥지찾기'를 처음 시작했으며, 미국 내 유일한 아시안 전문 위탁가정 에이전시(FFA)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32곳의 한인 가정이 위탁가정 자격을 갖췄으며 이들은 한인은 물론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아이들에게 총 45회에 걸쳐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이중 12명의 아이들은 입양됐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참석을 원하면 예약해야 한다.

예약 및 문의) 213-235-4868

jalee@kfamla.org

2016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단체 지원금 전달식을 마친 후 기념사진

지역사회 섬기는 여러분 우리가 돕겠습니다

오픈청지기 지원금 신청 시작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한인사회에 새로운 사회 환원 및 기부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오픈청지기 프로그램(Open Stewardship Program)이 올해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간다.

오픈뱅크가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오픈청지기재단(Open Stewardship Foundation)은 오는 10월 2일부터 2017년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수혜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게 되는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단체'가 아닌,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선정하는데, 현재 커뮤니티 내에서 시행되거나 시행될 프로그램에 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오픈청지기재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서류 심사와 현장 방문,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다. 독립적인 심사위원들이 참여하는 최종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말에 지원 프로그램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류 심사에서는 재단 측이 요구하는 서류가 정확히 제출되었는지를 우선 검사하게 되며 이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원 프로그램이 얼마나 커뮤니티와 연관성이 있고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게 되며 더 필요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재단에서 직접 확인한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서류를 통해 설명하기 힘든 부분을 직접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재단을 찾아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하고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당위성도 알리게 된다.

지원금 전달은 예전과 같이 3월 말에 실시할 계획이다.

오픈뱅크의 민 김 행장은 "지난 2011년 오픈뱅크가 오픈청지기재단을 설립하며 나눔을 약속하고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해서 발전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단체와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가 건네는 작은 손길이 커뮤니티의 어려운 곳에 따뜻함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픈청지기재단의 김옥희 이사장은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은 오픈뱅크 이사진과 경영진 그리고 직원들의 결단에 의해 탄생한 프로그램이다. 시행 초기 많은 어려움도 있었기에 그만큼 많은 보람도 느꼈다. 올해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들을 통해 많은 비영리단체들의 프로그램들이 한층 발전하고 힘을 얻기를 기대하고 더 많은 나눔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신청서는 오픈청지기재단 웹사이트(www.openstewardship.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와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제13회 후원의 밤 및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초/청/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AEU(미성대학교)가 정기 후원의 밤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면서 평소 대학을 위해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일 시 2017년 10월 22일(주일), 오후 5시
장 소 Holiday Inn Buena Park Hotel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주 관 AEU (미성대학교) 이사회
미성대학교 이사장 김광렬 박사
총 장 류종길 박사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 성 대 학 교
T.(323)643-0301, F.(323)643-0302
1818 S. Western., #409, Los Angeles, CA 90006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이 창립 32주년을 맞이해 지난 10월 1일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미국과 세계 살리는 영적 발전소 32주년 맞이해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원장 진유철 목사)이 지난 10월 1일 창립 32주년을 맞이했다. LA에서 80마일 가량 떨어진 리버사이드 로모랜드에 위치한 이 기도원은 한인은 물론 여러 다민족들도 찾아와 예배 드리며 영적으로 충전받고 간다. 지난해 통계로는 연인원 약 1만 5천 명이 이 기도원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에는 2차례 초교파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개최하며 남가주의 작은 한인교회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에도 나서고 있다.

32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 진유철 원장은 "남가주와 미국, 세계를 살리는 영적 발전소같은 기도원"이라며 감사와 자부심을 드러냈다. 진 원장은 이날 "주님은 주어, 사람은 동사"라는 설교를 통해 "오늘날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행하는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긍정적이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도원은 150에이커 부지에 3개의 성전과 10동의 숙소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본 성전을 재건축 중에 있다. 김준형 기자

기쁜우리교회의 가족연합예배 모습

기쁜우리교회 매월 가족연합예배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매달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가족연합예배로 드린다. 온 가족이 세대와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는 믿음과 사랑이 전수되는 은혜의 장이다.

먼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설교가 있고 그 후에 어른들을 위한 설교가 있었다. 어른 설교 때에도 어린이들이 점잖게 앉아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 교회는 최근 도서관을 개관하기도 했으며 교회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장애사역부가 활발히 사역하고 있기도 하다.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진 기쁜우리교회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예배드리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지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하는 교회, 신앙과 뿌리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사랑의 섬김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교인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이다.

전화) 818-662-0400
주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할렐루야한인교회에서 추계 부흥성회가 개최됐다.

할렐루야한인교회 추계 부흥성회 개최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LA 동부에 위치한 할렐루야한인교회(담임 송재호 목사)에서 길영환 목사를 초청해 추계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길영환 목사는 북가주에 위치한 콩코드침례교회를 개척해 39년간 사역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됐으며 지금은 남침례회(SBC) 산하 게이트웨이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 디렉터로 섬기고 있다.

이번 부흥성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총 5번의 집회가 진행됐고 길 목사는 설교를 통해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말씀을 나누었다. 길 목사는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회복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샬롬장애인선교회가 나눠줄 중고 전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필요하신 분 나눠드려요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지역사회 후원자들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전동 휠체어(Used Power Wheelchair)를 무상으로 나눠준다. 이 중고품들은 전문가들의 테스트와 수리, 검사 과정을 모두 거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샬롬장애인선교회가 확보한 전동 휠체어는 모두 10개이며 메디캘이나 메디케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애의 종류, 키, 몸무게, 간단한 자기 소개 등을 작성하여 우편 혹은 이메일로 보내면 심사를 거쳐 여부가 선정된다. 이 전동 휠체어는 오는 10월 26일(목) 오후 2시 샬롬장애인선교회에서 전달될 예정이다.

전화) 323-731-7724
우편 주소) 2869 W. Pico Blvd.
Los Angeles, 90006
이메일) shalommin@hotmail.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36〉

터키 난민 수련회 및 재방문 선교를 준비하며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필자는 이번 10월 말경에 터키의 A 도시에서 열리는 난민교회 지도자 수련회에 강의차 참석할 예정이다. 처음 터키를 방문한 때가 2007년이었는데 지금까지 매년 터키 땅을 밟고 있다. 필자는 터키의 쿠르드 민족을 종족입양하여 마음에 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10년 전보다 지금은 터키 내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진 곳도 많아져서 감사가 크다.

시리아의 내전과 IS의 출현으로 많은 난민들이 터키로 들어왔다. 그 난민들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지 않은 이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믿음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하여 난민들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를 이끄는 난민 지도자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새롭게 얻게 된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믿기 위해 많이 노력한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수련회를 통해 성경과 교회를 배우기 위한 열정을 갖고 있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번 수련회가 열리게 되었다.

4일간 미주에서도 몇몇 분들이 강사와 섬김을 위해 참가한다. 터키 난민 대상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그 의미가 매우 큰 사역이라 많은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다.

필자는 수련회를 마친 후에 한 주간 동안 재방문 선교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3년 전 터키 남부 지역을 돌며 배낭 선교를 했었다. 걷기도 하고 돌무시 시외버스를 타고 시골 구석구석 현지인들을 만나 교제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아랍어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했었다.

그때 최남단 도시인 바트만에서 'H'라는 청년을 만났다. 그는 매우 총명한 청년이었다. 앙카라 대학 출신이며 언어를 독학하여 영어까지 능통하게 하는 귀재였다. 그의 꿈은 이맘(이슬람 지도자)이 되는 것이었다.

그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을 권면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좋은 것은 알겠지만 자기는 알라를 믿고 있으니 괜찮다고 거절했다.

그러나 마지막 헤어질 때 그 청년이 내게 말했다. 다시 한 번 와서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예수를 전하면 그때에는 믿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다시 한 번 방문하겠다 약속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 이후 그가 사는 지역을 IS가 점령하면서 위험지역이 되었다. 작년에도 디야르바크르까지는 갔으나 그가 사는 지역까지는 위험하다 하여 끝내 못 가보고 발길을 돌렸다. 이번에는 꼭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쿠르드 청년 H를 위해 기도할 때 필자는 "예수 영접하여 쿠르드의 바울처럼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다. 그 청년은 쿠르드의 영적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청년이라는 꿈이 있다. 이 글을 읽는 몇 분이라도 필자의 이번 재방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 10년 터키와 중동지역 이슬람권에서의 무수히 많은 교회 탄생을 보며 선교에 참여하는 필자와 동역자들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만 흘릴 뿐이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교회가 선교한다? 선교가 교회 이끌어"

'오가닉 처치 세미나' 닐 콜 목사 강연

'넥스트 버전(Next Version)'의 교회를 위한 '오가닉 처치 세미나(Organic Church Seminar)'가 지난 9월 25-27일 서울 올림픽로 예한교회(담임 이승현 목사)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오가닉 리더십》, 《교회 3.0》, 《오가닉 처치》,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교회 트랜스퓨전(공저)》 등을 쓴 닐 콜 목사(Neil Cole)가 3일 동안 강사로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교회개척 운동을 지향하는 '넥스트 네트워크(Next Network)'에서 개최했다.

25일 오후 두 번째 강의에서 닐 콜 목사는 '예수님의 선교적 운동'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좋은 땅이라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순종한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며 "하지만 결국 씨앗이 뿌려져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도와야 한다. 전 세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고 전했다.

닐 콜 목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단 한 사람이 100명을 변화시켰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삽시간에 전파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콜 목사는 "제 모든 글과 사역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Listen to Jesus, and Do what He says)'"며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는 지구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하지 않았다. 단지 묘사했을 뿐"이라며 "교회는 분명 이벤트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거룩한 행동만 해야 한다고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닐 콜 목사는 "제자를 만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헌금을 하지만, 성만찬과 세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일까? 이러한 제한된 정의가 교회를 닫히게 했다"며 "성경에 로컬처치(Local Church·지역교회)와 파라처치(Para Church·선교단체)라는 용어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콜 목사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교회이다. 성경은 교회를 몸이자 신부, 산 돌, 양떼 등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유기체이다. 단 한 가지, 예수님만이 구별되는 점"이라며 "여러분이 누구라도,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교는 교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바로 선교"라며 "선교는 사도들이 시작한 것도, 마태복음 1장(신약)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다.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가 진정 유기체라면, 유전자가 있을 것"이라며 '교회라는 유기체'가 가져야 할 유전자(DNA)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DNA'의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신성한 진리(Divine Truth), 양육의 관계(Nurturing Relationship), 사도적 선교(Apostolic Mission)' 등이다.

콜 목사는 "우리는 하나의 DNA, 그 씨앗이 없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씨앗을 품은 열매가 돼야 한다. 신성한 진리와 양육의 관계와 사도적 선교가 담겨 있는 씨앗만이 재생산을 할 수 있다"며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고, 그 선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소망이며, 그 관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이 3가지가 크리스천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모든 몸의 세포들이 DNA를 담고 있듯, 우리도 이 DNA를 담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이것을 담을 수 있다"며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맺을 때,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난다. 유기체인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머리인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전략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모든 세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오가닉 처치'이다"라고 설명했다.

LA 출신의 콜 목사는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재학 중 복음을 접한 후,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시대에 맞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리더십이 세워지는 비전인 '오가닉 처치(Organic Church)와 그린 하우스(Green House)'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다.

메가처치, 지역교회 및 가정, 캠퍼스, 사업장 등을 불문하고 유기적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돕는 '어웨이크닝 교회(Awakening Chapels)'와 '교회 배가 협회(CMA; Church Multiplication Associates)' 설립에 참여, 세계를 순회하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림과 동시에 유기적 교회를 위한 네트워크와 코칭 및 리더십 발전을 위해 뛰고 있다.

교회 배가 협회(CMA)는 지난 20년 동안 40개국의 45여개 도시에서 가정교회를 포함하여 40여만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CMA 실행 책임자인 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역에 필요한 자원과 훈련을 제공, 건강한 제자와 지도자와 교회의 배가 운동이 일어나도록 섬기는 이론가·전략가이자 교회 개척 실행자이다.

콜 목사는 교회 개척(Church Planting)과 제자화(Discipleship), 배가(Multiplication)를 이 시대 교회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창 1:28)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마 28:18-20)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포함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바로 배가"라며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진짜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시대 흐름을 중시하면서도 시대와 다소 맞지 않는 '오가닉 처치(Organic Church)'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밖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즉 건강과 성장, 재생산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닐 콜 목사는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믿기보다, 우리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일어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 결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교회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낸다"며 "우리는 세상을 향해 더 문을 열고 교회의 문턱을 더 낮추려는 모든 시도를 하지만, 결국 세상에 있는 것을 그저 기독교화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의 이목을 별로 끌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시도 속에,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바뀌어지고 만다"며 "하지만 '오가닉적 접근'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복음과 예수님의 강력한 역사만을 신뢰하게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겉만 번지르르한 선전에 지치고 진리에 배고픈 세상에게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37:5-28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보통 꿈이라고 하면, 상당히 허무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주시는 이도,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 기대와 욕구를 위해 세운 꿈은 우리가 보통 말하듯 개꿈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전혀 원치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두고 세우신 계획을 그 사람에게 꿈으로 계시하시는 경우는 참으로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 하나님 사람의 비전

야곱에게는 열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총애하고 사랑했던 요셉은 그가 사랑한 라헬이 첫 번째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엄마를 그렇게 총애했듯이 그가 낳은 아들도 열한 번째 아들이었지만 특히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37:3-4에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했습니다.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상당한 불만거리였고 그 불만이 크면 클수록 요셉은 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본문 37:5-11에서 자신이 꾼 꿈들을 그의 형들에게 말함으로 더욱 큰 미움을 샀습니다. 그런 요셉이 열일곱 살 때까지는 아버지 슬하에서 각별한 총애 속에 행복한 나날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양 떼를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형들에게 먹을 음식도 전달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도단으로 떠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고 그를 해치고자 모의합니다. 오늘 그를 죽여 그의 채색 옷에 그의 피를 묻혀 짐승에게 해를 당했다고 아버지께 보고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맏형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합니다. 이것은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다고 창세기 37:22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그곳을 지나던 장사꾼을 보고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넘겨줍니다.

요셉은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신임을 얻어 그 집의 모든 경영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요셉에게 지혜와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삶이 계속되진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계속되는 유혹도 요셉은 신앙으로 이겨나가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왕께 범죄한 자들을 가두어 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9:21-23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있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 고민할 때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하고는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당신이 복직되고 또 당신의 위치가 안전해 지거든 그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말씀드려서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도 2년이 지나도록 옥살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던 중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그 나라의 박사들과 술사들이 해몽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냅니다. 바로가 꾼 꿈은 이러했습니다.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 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창41:1-7)

바로는 요셉을 불러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합니다. 이에 요셉은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합니다.

창세기 41:25-32에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칠 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라고 말하고는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를 청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 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창41:38-46)

이와 같이 요셉은 죄수에서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어 풍년이 든 7년 동안 곡식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일곱 해 흉년이 들어 애굽은 물론 전국 각처에서 기근이 심해져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야곱의 식구들도 마찬가지 형편이었기에 열 명의 아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옵니다. 이들은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오기 전 꾸었던 꿈과 같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꿈은 허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2.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리의 교회로 부르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 노력으로 세상의 허황된 꿈을 설계하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공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자랑스레 하여 더욱 큰 미움을 산 것은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은 요셉이 그렇게 드러내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을 두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의 꿈은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철저히 회개해서 거듭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며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신앙인의 생활로 하나님께 인정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창립 9주년 감사 예배 및 탈북자 증언의 날

탈북민들을 섬기는 나눔 장로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서 탈북자 북한 증언과 함께 9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북한 괴뢰 도당 김정은 일당의 핍박과 억눌림 속에 신음하고 있는 2500만 북한 동포들의 참상을 탈북민들을 통하여 함께 나누며,
북한 동포들과 중국에서 도피중인 탈북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7년 10월 8일 (주일) 오후 4시
- 장 소 : 나눔 장로교회 (남가주 한인 목사회장 김영구 목사 시무)
  2333 BEVERLY BL., #305, LOS ANGELES, CA 90057
- 문의전화 : (310)404-6219

MAY 주

" 나는 지옥 같은 내가 태어난 나라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맹세로 그 땅에 침을 뱉고, 한 겨울의 두만강을 홀로 건넜다 "

2005년 탈북. 2012년 미국 망명 입국.

최광혁

"300만 나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굶겨 죽인 김씨 왕조를 죽어도 잊지 않을 것이며, 그 짐승 만도 못한 북한 정권을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2012년 탈북. 2013년 미국 망명 입국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 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 · 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하지절단) 37%(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37%	21%	14%	12%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미세혈관 합병증	당뇨병 관련사망	심장마비	뇌졸증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 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텔레마케터 모집
문의 : 949-864-9162

프라미스교회 차기 담임목사로 추대된 허연행 목사

프라미스교회 담임목사에 허연행 목사 추대… 88.12% 지지

뉴욕, 뉴저지, 애틀랜타 성전 1,423명 투표 참여

프라미스교회가 지난달 24일 담임목사 후임 추대에 관한 임시공동의회를 실시한 결과 현 수석부목사인 허연행 목사가 88.12% 지지를 얻어 프라미스교회 차기 담임목사로 확정됐다.

프라미스교회는 한 주 앞선 지난 17일 교회창립 42주년 기념 및 김남수 담임목사 근속 40주년 예배를 드린 바 있다. 김남수 목사는 프라미스교회 담임 40년 차를 맞아 새로운 후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게 됐다.

프라미스교회는 그동안 외부에서 후임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외부에서 후임을 찾지 못하면 내부에서 추대를 한다는 교회 헌법에 의거, 지난 22년동안 수석부목사로 김남수 목사의 근거리에서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해 오던 허연행 목사를 차기 담임후보로 결정해 이를 위한 투표를 24일 진행했다.

미국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에 승인을 얻어 진행된 공동의회에는 지방회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뉴욕, 뉴저지, 애틀랜타 세 성전에서 각각 1, 2부 예배와 영어예배 직후, 1,42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88.12%이 허연행 목사의 차기 담임목사 추대를 찬성했다. 헌법에 명시된 기준은 찬성 2/3 이상이다. 프라미스교회 행정장로회는 앞으로 김남수 목사의 은퇴식(원로목사 추대식)과 후임 허연행 목사의 취임식을 논의해 알릴 예정이다.

허연행 목사는 인천 제물포고,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드류신학교, 고든콘웰신학교를 졸업하고 만 22년째 프라미스교회에서 사역 중이다. 현재 뉴욕 단비티비 이사, KIM-NET 이사, University of Valley Forge 이사, AG 뉴욕신학대학 겸임교수로 봉사하고 있다.

시애틀 형제교회 창립 46주년 기념예배

사도행전적 교회로 교회 사명과 존재 목적 붙들 것

시애틀 형제교회, 복음의 본질로 나아간다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는 지난달 24일, 교회 창립 4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시애틀 형제교회는 이번 창립 기념주일과 함께 △교회를 낳는 캠퍼스 사역(벨뷰 캠퍼스, 다운타운 캠퍼스, 뉴라이프의 시애틀 캠퍼스) △사이버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모바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역(IT 사역) △선교사 파송식 △선교 컨퍼런스 △장애우 사역 등의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는 이날 창립예배를 시점으로 공식 예배를 드렸으며, 형제교회 영어권 사역 뉴라이프처치는 한인 2세 교회를 넘어 워싱턴 대학교에 영어권 교회 캠퍼스를 개척하며 사역의 지경을 넓혔다.

권준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형제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재현되는 교회를 지향한다"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사랑으로 긍휼함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자"고 권면했다.

권 목사는 "46년 전, 형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형제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교회로 세우셨다"며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란 비전 아래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시애틀 형제교회는 1971년 윤심원 목사 가정에서 15명이 모여 첫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됐다. 이어 같은 해 최용걸 목사가 부임하고 시애틀 제일장로교회로 예배 장소를 옮겼다.

시애틀 형제교회는 1986년 심관식 목사에 이어 2000년 권준 목사 부임을 시작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권 목사는 부임 이후 교회 성전 부지를 구입하고 일대일 제자양육 사역을 비롯해 아버지 학교를 개설해 교회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 2002년에는 사랑의교회(송영세 목사)와 교회를 통합해 고구마 전도학교, 어머니학교, 행복한 부부 학교 등 전도와 가정 회복에 힘썼다.

2004년 새 성전에 입당한 형제교회는 공동체 40일을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예수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2005년부터는 형제 실버대학을 개교해 노년의 삶의 질을 높였고 2006년에는 UCIC를 시작하며 기독교 학교에 대한 비전을 심었다. 2007년 이후에는 형제교회 컨퍼런스, 여성 사역, 회복 사역, 미션 빌더 사역, 농아사역 등으로 사역의 범위를 확장했으며, 2015년에는 CCS 캠퍼스, 2017년에는 다운타운 캠퍼스, 벨뷰 캠퍼스, 뉴라이프 시애틀 캠퍼스를 개척하며 교회를 낳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브라이언 김 기자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한국학교 토 오전10:00 ~오후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오병이어 화 오전11:00 ~오후6: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
수요큐티모임 :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학교 오전 11 : 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A,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한글학교 오전 10:00 ~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15 / 3부예배 오전 11:45 /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45 /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 매일QT 월~금 오전 6: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 수요예배 오후 7:30 /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30 / 3부 EWS 예배 오후 2:00 /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 금요기도회 오후 7:00 /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1부예배(EM) 오전 9:30 / 2부예배(EM)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 2부 11:00 / 중/고예배 오전 11:00 /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1:30 /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 주일2부 오후 12:45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10:30 / EM예배 오후 12:30 /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 한어청년 오후 12: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 오전 11:00 / 유년부 오전 11:00 /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 Awana 오후 8:00(금) /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 주일 2부 오전 9:30 / 주일 3부 오전 11:30 /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 영어예배 오전 10: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 새벽예배 (월-토) 5:00am /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30 /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 장애인예배 오전 11:30 /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예배 오후 8:00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562) 690-7979 F.(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참석한 원로목회자들이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2017 원로목회자 회개기도대성회' 성황리 마쳐

"하나님, 저부터 회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원로목회자들의 기도는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임원순 목사)과 한국원로목자교회(담임 한은수 목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 원로목회자 회개기도대성회'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김진옥 목사(재단 이사)가 인도한 기도회는 임원순 목사(재단 이사장)의 인사말과 김동권 목사(예장 합동 증경총회장)의 취지문 낭독, 이상모 목사(소망침례교회 원로)의 회개선언문 낭독, 문세광 목사(의왕중앙교회 원로)의 대표기도,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의 설교, 림인식(노량진교회 원로)·최복규(한국중앙교회 원로)·박정근(대조순복음교회 원로)·김진호(도봉감리교회 원로) 목사의 특별메시지, 회개기도, 엄기호 목사(한기총 대표회장)의 축사, 한은수 목사(대회장)의 인사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원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개기도대성회가 나라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잘못이, 내가 먼저 참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길 원한다"며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주의 종으로부터 성도에게까지, 도시에서 시골까지, 회개의 물결이 흐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상모 목사는 회개선언을 통해 "회개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삶의 변화이며 이 시대의 복음의 나팔이다. 회개는 잘못에 대한 또 다른 승리다. 이런 신앙의 개혁을 통해 복음의 부흥을 이루고 땅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 회개가 열매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하나님 나부터 회개합니다'(느헤미야 1:1~11)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상복 목사는 "우리는 그 동안 기도만 요란한 빈껍질이 되어 진정한 기도의 제물이 되지 못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교회의 원로가 되어, 선지자의 용기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제 남은 생애를 회개로 살아가자. 고난의 쓴 잔을 나누고, 찔림과 상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세습방지법 위헌 헌법위 해석 곧바로 시행돼야"

이정환 목사 "장로교회 성도의 기본권, 존중돼야"

일명 '세습방지법'에 대한 질의로 예장 통합 제102회 총회에서 '위헌' 의견을 이끌어낸 이정환 목사(팔호교회)가, 28일 서울 상계동 한 카페에서 이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위헌 의견은 제101회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지난 8월 8일과 17일 두 차례 헌법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졌다. 이 안건은 총회 이후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상회인 서울동남노회 가을 정기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보류한 채 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정환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헌법 간에 상호 충돌하는 부분은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가 이제야 드러난 것"이라며 "4년 전 목사의 청빙에 대한 소위 '세습방지법'을 제정했으나 저는 당시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법 제정을 공개 반대한 바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목사는 "장로교는 감리교나 침례교와 다른 독특한 정치구조 2가지를 갖고 있다. 바로 성직자 치리권과 성도의 기본권으로, 이 둘은 존중돼야 한다"며 "교인의 기본권이 와해된다면 성직자의 치리권만 남게 되는데, 이는 장로교회가 아니라 감독교회일 뿐이다. 교인의 기본권은 우리나라 헌법과 교단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는 "장로교 정치 원리에도 위배되고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주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부탁·요구했지만 그간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는 특정 교회를 전제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게 싫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많은 총대들이 소홀하게 눈을 감고 지나온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목사는 "위헌 판정을 받은 법안은 나중에 개정안이 올라올 때까지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헌법위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헌법시행규정을 보면, 판정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위가 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즉시 개정해야 한다. 곧바로 개정하지 않을 시 위헌 판정을 받은 법안은 즉시 사문화되고 효력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장 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지난 9월 1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헌법위 해석은 어디까지나 해석일 뿐으로, 세습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세습방지법, 통과와 위헌 유권해석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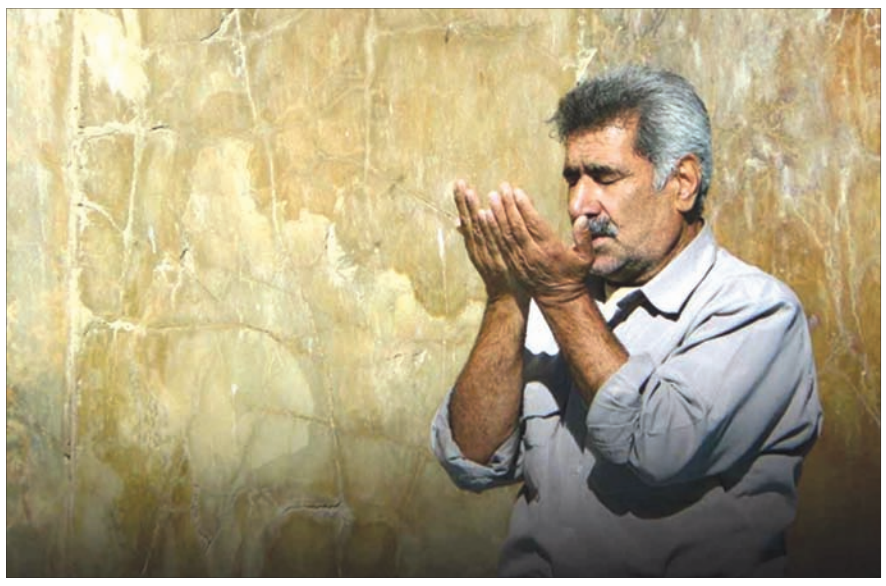
'세습방지법'은 지난 2013년 9월 서울 명성교회에서 열린 제98회 총회에서 총대들 다수의 찬성으로 제정이 결의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4년 1월 13일 제98회 헌법위원회에서 "헌법을 개정해 법안을 먼저 공포했어야 했다"며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4일 후인 17일 임원회에서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제101회기 총회 헌법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유권해석을 통해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에 의해 목사 청빙은 장로교는 성도들의 권리이므로, 제1조(양심의 자유)와 제2조(교회의 자유)에 입각해 교단이 교회의 자유(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장로교 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며 "장로교는 감독정치가 아니라 대의정치와 회중정치에 근거한 교파이기 때문에 (목사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정으로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가 인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3항과 충돌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8월 17일 2차 유권해석에서도 "제28조 6항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대웅 기자



기도하는 무슬림 남성 ⓒ미국 오픈도어선교회

기독교로 개종하는 스페인 무슬림 난민들 증가

이슬람에 좌절을 느끼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스페인 난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이들은 이곳 사역자들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듣고 이를 경험한 이후에 예배에도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한 부부는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압제로부터 탈출해 유럽으로 건너왔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다. 스페인으로 이동하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을 비롯해 여러 가지 힘든 경험들이 종교에 대한 회의를 갖게 했고, IS의 무자비한 폭력은 어릴 때부터 가져온 신앙을 흔들었다.

처음 이들 부부는 유럽의 기독교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스페인의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인도주의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 단체의 책임자는 그들에게 "필요한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 시리아 음식축제도 개최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난민들이 "왜 우리를 돕느냐?"고 묻자,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선함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역 책임자는 "시리아 난민들은 이슬람에 대한 큰 혼란을 느끼고 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서 "이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형제들 중 한 명이 이들의 아파트를 심방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무슬림 난민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망명자 신분을 더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중동 출신 난민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신청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독교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독일의 마티아스 링케 사제는 "매일 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다. 유럽으로 건너 온 많은 난민들이 기독교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를 '자유의 종교'로 여긴다"고 답했다.

강혜진 기자

방글라데시 바루칼리 난민 캠프에 임시 거처를 만들어 지내는 난민들 ⓒ월드비전

방글라데시 미얀마 난민 위해 월드비전 긴급구호활동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25일 방글라데시 내 미얀마 난민 긴급구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고재난규모'인 카테고리III(재난으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총인구의 50% 이상에게 피해를 미치거나, 하루 사망자가 1만 명 이상인 재난에 선포)를 선포한 후, 긴급구호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구호활동은 지난 8월 25일 아침 미얀마의 라카인(Rakhine) 주 경찰서를 급습한 무장 단체와 정부군 사이에 발생한 무력 충돌 이후 발생한 43만 명의 난민에게 구호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 미얀마는 무장 단체와 정부군 사이에 발생한 무력 충돌이 지역 전체로 번지며,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삶에 위협을 느낀 많은 사람들은 살던 곳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기로 결심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가고 있는 난민의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다.

현재 방글라데시로 넘어간 43만 명의 주민과 아이들은 제대로 된 쉼터나 주거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닐과 나무를 엮어 임시로 만든 거주지나 심지어 차가 다니는 도로변에서 지내고 있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임시 거주지와 구호 물자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난민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긴 줄로 이어진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우선 월드비전은 지난 9월 17일부터 4일간 무력충돌 후 가장 극심한 영향을 받은 콕스바자르(Cox's Bazar) 지역 난민 캠프에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월드비전 현장 조사팀을 파견했다. 안전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월드비전 조사팀은 사망자는 약 3천명이고,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은 난민은 약 43만 명, 분쟁 과정에서 화재로 소실된 주택 1만여 채이며(ISCG, Inter Sector Coordination Group 9월 19일 보고서 기준) 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월드비전은 현장 조사 이후 긴급구호활동을 위한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6개월 간 500만 달러 규모로 난민 15만명을 대상으로 식량과 주거지, 식수위생 분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분쟁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을 중심으로 긴급식량지원, 주거지 및 영양, 깨끗한 물, 식수위생시설, 급성 질병치료를 위한 기초의료지원과 아동심리보호센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글라데시 월드비전의 프레드 위트빈(Fred Witteveen) 회장은 "월드비전은 정부 승인과 함께 먼저 3천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식량사업을 시작하며 구호 활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의 기자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금요찬양예배 7:30 PM
주일학교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토요일 6:30 A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E.M(Youth)오전11:00
청년부 주일 오후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일 삼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위한
제24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2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7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가주치과 대표 오덕재 원장,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후원 기독일보, FH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생명수 한의원
Living Water Acupuncture

전문 진료 과목
한방 신경정신과
불면, 불안(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화병
과잉행동증후군(ADHD)
조현병(정신분열증)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1장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1~2절)

배 상석 원장
Joshua Bae L.Ac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한방 임상 30년
중시침법 창안자

Tel. 714-761-5454
520 N. Brookhurst St. #208, Anaheim, CA 92801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한 갈대와 같이 쉽게 흔들립니다. 인간은 쉽게 염려하고 쉽게 두려워합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은 때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겉으로는 담대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고요한 마음을 가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호수에 떠 있는 오리의 모습은 너무 고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겉으로 고요해 보이는 오리의 발은 물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지도자의 가장 소중한 성품을 용기(勇氣)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다른 성품을 보장하는 용기야말로 인간의 특징 중 으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용기란 장애물과 두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는 내면의 결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애물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전진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글을 쓰는 중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용기가 필요했었는지를 숙고해 보았습니다. 제게 필요했던 용기를 나열하다 보니 무수한 용기가 필요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목회자의 길에 들어 선 용기, 조국을 떠나 유학 온 용기, 모험하는 용기,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용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용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용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용기, 미움받는 용기, 모멸감을 견뎌내는 용기, 비난을 견뎌내는 용기, 거절을 이겨내는 용기,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버림받은 상처를 극복하는 용기,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는 용기,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용기, 떠나는 사람을 조용히 떠나도록 도와주는 용기,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에 머무는 용기,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는 용기, 고난을 스승으로 삼는 용기, 모든 상황을 통해 배우는 용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용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용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용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용기,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용기, 남을 위해 희생하는 용기, 분노를 잠재우는 용기,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는 용기,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는 용기, 힘든 병을 이겨내는 용기,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용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용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용기, 전도하는 용기, 낯선 땅에 가서 선교하는 용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

너무 길게 나열했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사실은 더욱 많은 데 조금 줄인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요일4:18).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단11:32).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빌1:21)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이유도 죽는 이유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롬14:8).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롬8:28).

무엇보다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히12:2). 시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전진하기 (9)

제 이 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 목사님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증세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Blow up, Cover up, Speed up and Give up.

첫째, Blow up. 간단히 말해 이것은 실수를 범한 사람이 화를 내거나 노여움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범한 사람이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화를 내고 남을 탓할 때 불똥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주위엔 상처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의 경우, 분노로 자녀에게 또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실수를 범하고, 실패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수정해 나아가는 것은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취하는 자세입니다.

둘째, Cover up. 이것은 바로 실수를 덮어 숨기려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자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동산에서 그들의 실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려 했습니다. 실패를 범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숨기고 남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고 또 남에게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숨기려 하면 결국 더 큰 문제로 확산됩니다.

셋째, Speed up. 이것은 실수를 범했지만 그 원인이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계속 전진만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위엔 일에 중독된 Workaholic 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많이 일하고 계속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함으로 자신을 위로하거나 현실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엄청난 양의 일을 하고 있기에, 당연히 실수하고 실패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뛰므로 실수와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길을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전진하더라도, 결국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왜 범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시간을 내어 차분히 검토해 보고 방법과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빨리 처리 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Give up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실패를 많이 체험하고, 또 실수를 많이 범하는 사람은 포기에 익숙해집니다. 예를 들어, 프리웨이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길이 너무 막혀 아예 포기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포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포기하려면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실패 후 재도전 하지 않는 포기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무조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려움과 좌절로 인해 주저앉아 상황과 타인만 탓하며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꽤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에 묶여 위축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본으로 보여줘선 안 되겠습니다.

고요한 침묵의 소리

박 성 근 목사
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

요즈음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보내는 트윗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북핵을 다루는 것도 그렇고, 샬롯츠빌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를 다루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아름다을 때가 있습니다.

16세기 영성가 중 한 사람인 마이클 몰리노스는 삶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세 가지 침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말의 침묵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상처를 막아줍니다. 생각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상대방의 가슴을 찌른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혹은 성도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이 바로 이것입니다. 섣부른 외침보다 신중한 침묵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을 이룰 때가 더 많습니다.

둘째로, 욕망의 침묵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잠재우는 것을 뜻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유혹의 소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탐욕과 정욕이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옛 속성을 잠재울 때 비로소 고요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생각의 침묵입니다. 이것은 내면에 있는 모든 생각을 비워내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으로 가득차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외침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기에 오히려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정녕 필요한 것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분주한 마음, 소란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1:35)

남한 기독교의 힘 연구하다 일제시대 기독교 민족주의 재발견

케네스 웰즈 박사, 개인과 사회 변화시킨 초기 한국 기독교 조명

"왜 조선은 이웃 나라의 속국이 될 만큼 약해졌는가. 한 나라의 장래에 대한 '영적' 비전은 무엇인가."

약 100년 전 안창호, 조만식 선생 등 한국 초기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조선이 속국에서 벗어나 독립된 새로운 한국 문명을 창조하고 세우는 유일한 길은 '자기 개조'임을 강조했다. "각각 자기가 자기를 개조해야 비로소 우리 전체를 개조할 희망이 생긴다"는 안창호 선생의 1919년 '개조'라는 제목의 연설은 오늘의 한국사회와 한국 기독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초기 기독교 민족주의를 연구한 한국교회 역사가이자 목사인 케네스 웰즈(Kenneth Wells) 박사는 지난달 21일 한국 순교자의소리에서 자신의 저서 '새 하나님, 새 민족'의 새 번역본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했다. 현재 뉴질랜드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이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캔터베리대학의 역사학 명예교수인 그는 한국의 초기 개신교인들이 민족주의에 기여한 바와 이들의 민족주의 활동 기반을 연구한 논문으로 호주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새 하나님, 새 민족'은 그의 박사 논문을 수정해 1991년에 처음 출판됐으며, 한국 순교자의소리가 이번에 개역증보판으로 다시 출판했다.

한국 초기 개신교와 민족주의

"남한 기독교의 힘은 역사 속에 남은 수수께끼였습니다."

한국에서 수년간 유학생활을 하고, 아내가 한국인인 웰즈 박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어로 발표했다. 그는 "아시아 전체에서 개신교가 예외적으로 강한 남한을 보며, 일제 치하에 전개된 한국 민족주의 운동이 남한의 '기독교 강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해졌고, 한국 개신교와 민족주의 간 관계를 연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한말 개신교인은 소수였고, 1945년에는 전 인구의 3%에 불과했으나 많은 개신교인이 민족주의 활동에 참여했으며, 1920년까지 개신교 민족주의자들이 지도적 역할을 감당했다.

케네스 웰즈 박사는 '그들을 민족주의자로 이끈 신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교리로 민족주의적 신조를 만들어 갔을지' 물음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으나, 곧 난관에 부딪혔다. 윤치호 선생의 일기 같은 몇몇 확실한 자료 외 주제와 연관된 자료를 찾기 쉽지 않았고, 참조 문헌 또한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족주의자를 인정하는 데 한국 학자들 사이의 이견이 있었는데, '기독교인은 다 친일파'로 보는 학자도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개신교인들이 일제 침입에 민족주의적 대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수적으로 열세였던 점, 1920년 이후에는 민족주의 운동권의 주류를 차지하지 않게 된 점이었다. 그는 "따라서 태반의 한국 민족주의자들은 개신교 교리나 개신교인이 민족주의자가 되는 이유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과 같은 이유로 개신교인들도 민족주의 저항에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네스 웰즈 박사는 민족주의에 동참했던 개신교인들이 그 속의 비개신교인들과 구별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했고, 몇몇 기독교인이 자신의 민족주의 활동에 개신교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개신교인들로 이뤄진 한 집단의 기록과 활동은 개신교가 적어도 자기 개조나 윤리적 민족주의와 같은 민족주의의 한 흐름의 형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또 개신교식 민족주의가 일본의 즉각적인 축출에만 초점을 맞추던 당시 주류 민족주의와 일부 부딪히면서 불가피하게 주류와 다른 전략을 갖게 됐고, 우익과 좌익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됐다고 밝혔다. 웰즈 박사는 "개신교인 민족주의자나 운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거 개신교인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고, 당대 비평가의 의견을 그대로 좇아 비판했다"며 "이는 아주 서투른 역사 연구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개신교 민족주의자들의 민족주의 전략의 이유를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개신교식 민족주의의 존재를 알려고 연구하는 한국인은 뉴질랜드인인 그가 박사 논문을 준비할 당시 한 사람도 없었다.

개신교식 민족주의는 자기 개조 강조

그가 한국의 개신교식 민족주의를 '자기 개조 민족주의'로 이름 붙인 것은 안창호, 윤치호 선생 등의 말에서 따온 것이다. 웰즈 박사는 "안창호, 윤치호, 조만식 선생 등은 자기개조 운동에 영적 의미와 이유를 부여했는데, 보통 역사학자들은 어떤 행동의 영적 원인을 찾는 데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어떻게 영적 입장을 찾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 예로 그는 "물질적으로만 저항을 이해하면, 민족주의적 저항이 당연히 신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치적 행동이 되고, 상황이 허락되면 무기를 사용하는 행동으로 생각하게 된다"며 "비폭력, 혹은 영적 저항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은 즉각 '그건 저항도 아니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의 비폭력 전략이 일제에의 협조의 한 형태로 오해받은 이유와도 같다.

케네스 웰즈 박사

그는 이 책이 두 가지 이유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와 한국 기독교에 도움과 도전을 줄 것으로 확신했다. 먼저 "오늘날 남한의 개신교회는 긍정적이고 개인 및 사회를 변화시키는 신앙으로서의 한국 기독교를 세운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념과 삶 및 태도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며 "안창호 선생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갖게 된 새 신앙의 교리와 영적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개인과 사회에 반영하고자 진정으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초기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조선이 왜 일본 외에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을 정도로 이웃 나라의 속국이 될 만큼 약해졌는지 영적으로 깊이 이해했고, 조선인에 영적 회복이 필요하며, 그 영적 회복은 각 개인의 회복, 혹은 개조에서 시작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웰즈 박사는 또 "이들은 물질주의자가 아니었다"며 "안창호, 조만식 선생이 지금의 한국사회를 보면 자신들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그 한국이 아니라 하고, 자기 이익과 건강, 좋은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개조 운동이 필요하다고 여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책이 현시점에 필요하다고 믿는 두 번째 이유로 "초대 개신교 민족주의자들의 생각과 신념을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날 한국 문제를 다룰 방법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때 그 시절 모든 개인, 사회, 경제, 정치 상황을 자신이 믿는 신앙의 핵심 교리와 결부시키려 노력했던 이들을 통해 고무적 시각을 얻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창호 선생이 말한 자기 개조의 방법에 대해 "생각, 태도, 행동 등 보편적 개조에 대해 언급했는데,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위치와 관계없이 남을 대접하며, 지역주의 등에서 벗어나야 한국 사람들이 단결하고 속국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개인을 개조하지 않으면 절대 사회를 개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각각 돌아보고 이웃을 각각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고 간략히 소개했다. 그는 "길선주 목사도 1916년 '만사성취'라는 책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결핍을 지적하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썼다"며 "그 내용은 게으르지 않고 술 취하지 않으며, 계층과 비관주의를 없애고 실력을 양성하는 것인데, 역시 자기 개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순교자의소리 CEO 에릭 폴리 목사는 "케네스 웰즈 박사의 글은 학문적 업적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며 "학자들만 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 기독교인이 읽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순교자의소리 회장 폴리 현숙 목사도 "한국의 모든 교회 지도자와 신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고, 모든 신학대학원과 대학교 도서관에 있어야 할 책"이라고 강조했다.

◈**케네스 웰즈 박사=** 1912부터 1934년까지 중국내지선교회(CIM, OMF 전신) 파송 중국선교사였던 외조부, 외조모로부터 중국에 관해 들으며 성장했고, ICYE(International Christian Youth Exchange)라는 크리스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해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71년, 11개월간 한국 가정에서 지냈다. 1972년 뉴질랜드로 돌아가 대학에 입학했는데, 한국어 과목이 없어 일본어와 아시아 역사를 공부했고, 석사과정 논문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연구했다. 교환학생 시절 이미 한국에서 강세인 기독교에 의문을 가지고 있던 그는 호주국립대학 박사과정에서 한국 개신교와 민족주의 간 관계를 연구하기로 하고 1980년 3월 다시 한국에 와서 20개월간 연세대 국학연구원에서 연구하고, 1985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인디애나대학, 호주국립대학에서 강의했으며, 1994년 호주국립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1995년 대양주한국학회를 설립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UC버클리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쳤다. 한국의 근대 민족주의, 종교, 이념, 여권(女權) 운동에 대한 많은 글을 썼으며 학술 저서는 '새 하나님, 새 민족: 1896~1937년 한국 개신교와 자기 개조 민족주의에 대한 고찰'(순교자의소리, 2017 개역증보판), 'South Korea's Minjung Movement: the Culture and Politics of Dissent', 'Korea: Outline of a Civilisation'(Brill, 2015)이 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 **송금·환전** 빠른 지급
$ 미국 〈.....〉 한국 ₩
7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CD봉투+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한의사랑
한의사 Zo'e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인하손만두
626-731-7864
각종 김치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50개 $20) 왕만두, 팥찐빵(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2018 NEW CALENDAR
Best Seller
2018 성경 통독 도우미 달력
최소 100부 $3.5ea
주님과 동행하는 삶 3D
탁상달력 사전 주문 시작합니다.
9월 30일 이전까지 주문완료 해주신 교회한해서 제작이 가능하십니다.
착오없이 빠르게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 탁상달력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붓글씨로 제작하였습니다. 다달이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New 말씀통독 달력버전
기도제목 칸과 말씀통독할 수 있도록 모든날짜에 말씀 범위가 적혀있습니다.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열두달의 삶을 컨셉으로 만들어진 주님미디어의 2018년 달력은 두가지 버전으로 준비 되어 있습니다. 323.265.0244
일반캘리달력과 1년통독달력으로 원하시는 것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기본수량은 100부이며 다른수량을 원하시는 교회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바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의 2018년도를 준비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랏 여아림(아부 고쉬)의 마을 전경과 기념교회 모습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45)

숲의 지역 – 기랏 여아림

법궤가 126년간 머물렀던 곳

지중해안에 있는 텔아비브에서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거쳐 엠마오를 지나 1번 고속도로로 올라가다 보면 숲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기랏 여아림(Qiryat Yearim)이 나온다. "산림의 성읍 혹은 수풀의 도시"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숲이 우거진 것은 아니다. 유다 지파에 배당된 땅이었고, 한 때는 바알레 유다(Baale of Judah)라고 불리기도 하였다.(수9:17, 15:9, 삼하6:2)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시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성읍과 함께 화친한 네 개의 성읍 중 하나다.(수9:3-18) 유대와 베냐민의 경계지역(수15:9)이며, 블레셋에 의해 법궤가 돌아온 곳이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까지 126년간 이곳에 머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삼상7:2, 삼하6:10-12, 행13:21)

블레셋에서 올라온 법궤는 벧세메스(Beth Shemes, 태양의 집) 유다 경계지역 도시에 도착하였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궤를 들여다 본고로 70명이 죽게 되어 그곳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궤를 지키게 하였다.

126년을 머물렀던 법궤가 때가 되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된다.(삼하6:12)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다. 신하들과 상의한 다윗은 법궤를 기랏 여아림에서 옮겨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으로 옮겼다가 석 달을 머물게 한 후 드디어 다윗 성으로 옮긴다. 다윗 왕과 온 백성이 너무 기뻐하여 춤추며 뛰노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한다.(대상15장)

또 하나의 엠마오로 알려진 기랏 여아림

오늘날 기랏 여아림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고 팔레스타인 아랍사람들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지역이 되었다. 또 다른 엠마오로 알려진 아부 고쉬(Abu Ghosh)가 기랏 여아림이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인구 6,000명의 작은 시골 마을이다. 구약성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경계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으로 이 마을은 기랏 엘 에나브(Qaryet el-Enab)로 불렸는데, 이 이름은 기랏 여아림의 아랍식 명칭이다.

지난 호에 엠마오에서 언급한 사실이지만 아부 고쉬는 19세기 초 이 마을 근처에 야영지를 차렸던 아랍 산적 두목의 이름이다. 비잔틴 시대부터 수도원이 세워졌는데 십자군 시대에는 아부 고쉬를 엠마오로 여겼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 발견된 대상 숙소(Caravansary) 때문이다. 이것은 여행자들이 쉬는 곳이었는데, 중세기의 순례자들은 이곳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와 빵을 함께 나눈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1140년에 기념 성당이 세워졌고 오늘날 이곳에는 베네딕토 수도원(Benedictine Monastery)과 프랑스 수녀회에서 관장하는 노트르담 교회가 있다.

마을의 중앙부에는 비잔틴 시대에 지어진 고대 교회가 있다. 지어진 규모나 연대로 보아 기랏 여아림의 법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수도원이었지 않나 싶다. 그리고 마을의 제일 높은 곳에는 아비나답의 집이 있었고 그 자리에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지은 기념교회가 있다.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기랏 여아림을 기리는 메시아닉 유대인

아쉽게도 지금 기랏 여아림에는 기독인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주민의 대다수가 무슬림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높은 언덕 쪽에는 유대인 작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는 하다. 다행인 것은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기독교 공동체인 '야드 하시모네'라는 키브츠가 있고 이곳에는 그들이 경영하는 호텔이 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결혼식이나 가족 수련회 등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독교 공동체라서 그런지 다수의 순례객들이 머물기도 하고 한국인들에 의해 유럽목회자 세미나가 열리기도 하였다. 주변의 공지에서 해마다 칠칠절(맥추절)이면 전 이스라엘 지역의 메시아닉 유대인 형제들이 모여 오순절을 기념하기도 하며 노래와 말씀 사경회를 가지기도 한다. 각 교회별로 발표회도 있고 아무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와 힘을 얻은 시간을 갖는다.

법궤가 머물렀다는 이 지역에서 칠칠절 행사를 가진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다시 생각해 본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법궤를 앞세웠지만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것을 기억하자. 말씀을 이용하려면 오늘도 패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사모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이곳에서 다시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기랏 여아림에 세워진 거대한 모스크

오늘날 이 마을을 내려다보는 언덕에는 수도원이 있는데, 그 곳 교회의 음향이 너무나 놀라워서 매년 두 차례씩 클래식 합창 축제를 여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근처에는 또 굉장히 큰 정통 유대교 공동체가 있다. 유대인들도 이 마을의 구성원으로 집단적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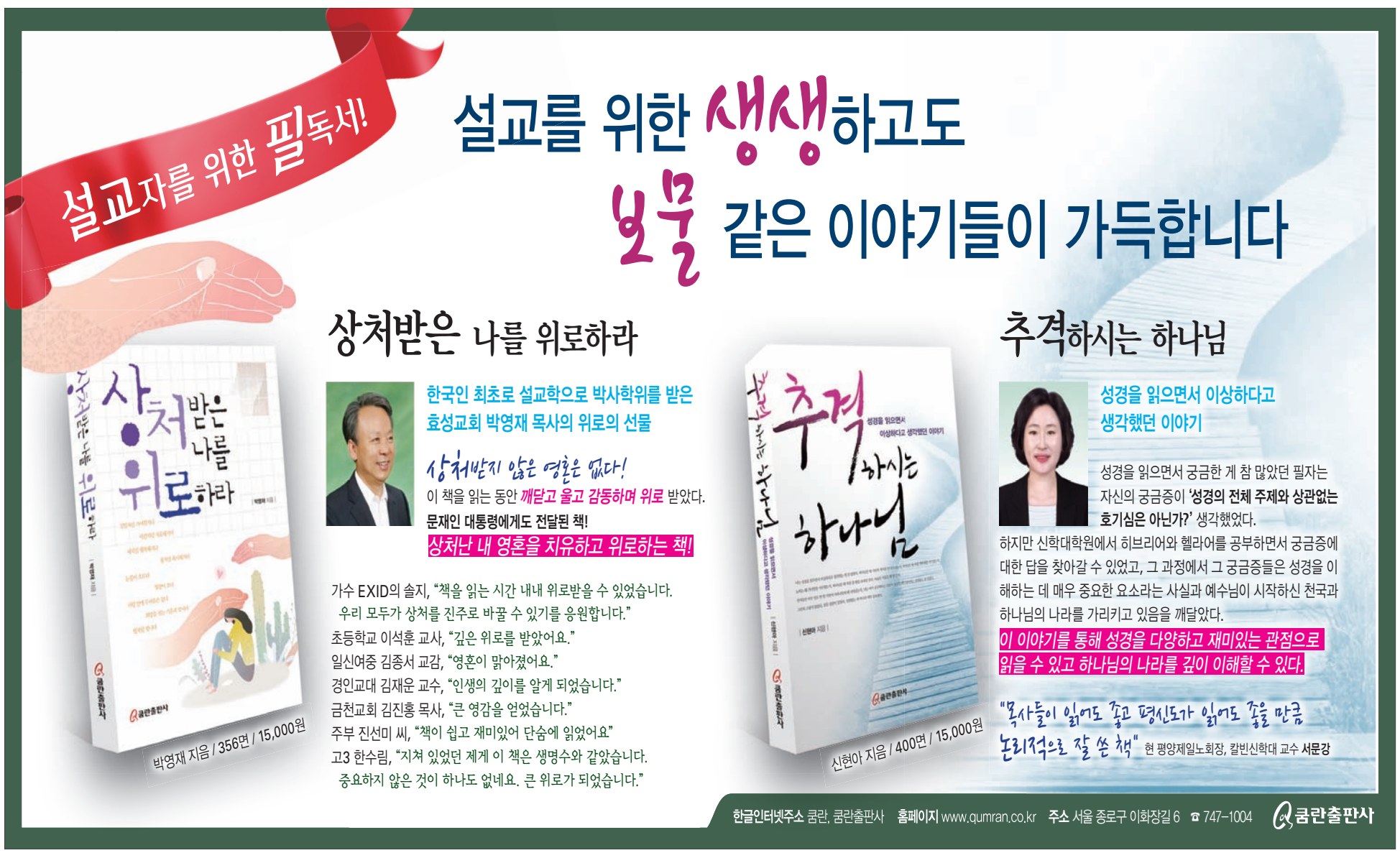
아부 고쉬의 아랍 공동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친근감으로 오랜 동안 알려져 왔다. 이는 초기 시온주의자들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오늘날 마을 안의 식당들은 매 주말마다 유대인 손님들로 홍수를 이룬다. 유명한 피타빵 등 유대인 정통 요리들을 맛보며, 친근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곳에 들어선 첨탑 구조물이 갑자기 예루살렘-텔아비브 간 1번 프리웨이를 달리는 운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이것은 거대한, 새 모스크이다. 예루살렘 성전 산에 있는 엘 악사 모스크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모스크로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모스크는 주로 체첸 이슬람 공화국의 재정으로 지어졌다. 필요한 1천만 달러 중 6백만 달러를 기부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평범한 모스크가 아니다. 1천년 만에 이스라엘 최대 규모로 지어지는 것이다. 이보다 큰 유일한 모스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가 결국 자리하기 위해 왔던 예루살렘에 있다.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전에 법궤가 머물렀던 곳에 두 번째 규모의 모스크가 세워진 것이다. 새로운 영적 전쟁의 시작인가? 거대한 모스크가 하필 법궤가 머물렀던 기랏 여아림에 세워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한 새로운 도고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계속〉

기념교회의 내부 모습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도서

완벽주의에 작별을 고하다

코넬리아 마크 | 토기장이 | 160쪽

저자는 완벽주의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완벽주의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를 제시한다. 참된 나를 회복함으로써 완벽주의로부터 자유하는 길을 제시한다.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여러 모습들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불완전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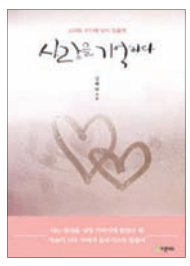
예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재경 | 곰도와니 그림 | 세움북스 | 183쪽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자의 통찰력 있는 메시지가 전달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의식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기 쉽게 소개해 주는 책이다. 글이 매우 명쾌하며 삽화까지 포함돼 있어 이해를 돕는다. 1부는 예배와 목사, 2부는 예배 환경, 3부는 예배 순서, 4부는 말씀, 5부는 성례로 구성돼 있다.

사랑을 기억하다

김혜숙 | 피톤치드 | 248쪽



갑작스럽게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저자가, 떠난 뒤 그 사랑의 크기를 알고 뒤늦은 후회와 아픔을 문장 하나하나에 아로새겼다. 그리고 못다 한 사랑을 두 아이와 주변의 고마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과 나누고 베풀고자 노력한다. 비록 그 사람은 곁에 없지만 그가 준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키워내고 나누고, 사랑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과정이 담겼다.

하나님, 성품이 뭐예요?

유경상 | CUP | 328쪽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미디어가 뭐예요?〉에 이은 기독교 세계관 시리즈 셋째 권이다. 저자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로, 2007년 기독교 세계관교육센터(CTC)를 설립해 어린이·청소년, 부모·지도자를 위한 세계관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삽화와 함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들어가 있어, 어린이·청소년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했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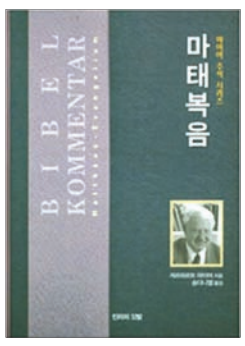
'비평학 본고장' 독일에서 비평학 거부한 성경연구 주석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혁교회를 개척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송다니엘 목사가 번역한 주석서이다. 풍성하나 성경과 삶이 연관되지 않은 한국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독일은 기독교 사회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탈기독교화된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 결국 성경을 어떻게 읽고 삶에 적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한 과정을 완벽하게 구현시키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독일에서 목격한 사람이, 그것을 한국 교회에 소개한다.

마이어의 〈마태복음〉 주석은 비평학의 고장 독일에서 비평학을 거부하면서 진행한 성경연구 주석이다. 현재 독일에서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는 스테디셀러라고 한다. 독일 교회 안에서도 비평학을 거부하는 연구자가 있고, 그러한 저술이 꾸준하게 판매되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마태복음〉 주석은 독일 사람의 저술인데도 매우 간략한 문체로 구성하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간략한 문체이다. 독일의 복잡한 사고 체계에도 불구하고 명료한 문체는, 복음을 전할 때 취해야 할 자세를 볼 수 있다. 간명한 문체는 독자들이 빠르게 저자의 사상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마태복음
게르하르트 마이어
진리의깃발 | 1,023쪽

〈마태복음〉 주석은 매우 간명한 문장이기 때문에, 설교 문장으로 변환하기도 쉽다. 사상이 명료하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강단 설교 문장으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쉬운 문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읽으면서 저자의 주해 과정을 볼 수 있다. 주해자의 구조를 이해하면 독자도 그 과정을 따라 자기 성경 주해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난해한 성경 주해는 독자들이 많이 읽고 연구해도 자기 주해 과정을 이루기 어렵다. 그러나 마이어는 〈성경해석학(송다니엘 번역, 영음사, 2014년)〉과 함께 주해를 진행했기 때문에, 독자가 스스로 성경 주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훈련 도서이기도 하다.

〈마태복음〉 주석은 주해와 적용으로 구성돼 있다. 본래 한 권으로 구성했는데, 번역 과정에서 편집해 두 권으로 분리시켰다. 독일 그리스도인의 성경 연구가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번역자는 독일에서 적용이 한국과 다를 수 있지만, 독일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엄격하게 성경을 삶에 적용하는지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한 독자는 영미 계열이 가득한 한국 교회에 독일 교회의 성경 이해가 소개되는 것을 기뻐했다. 한국교회에 첫 발을 디딘 마이어의 〈마태복음 주석〉이 새로운 맛을 제공할 것이다. 모든 독자들이 참여하고 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2017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 (714)527-0691(0692) Fax :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 백지영 박사 부총장 :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213)381-7755 Fax.(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사람의 가장 커다란 불행 그리스도로 인해 넘어짐

[송광택 목사의 인문 고전 읽기] 죽음에 이르는 병

쇠렌 키에르케고어(Kierkegaard, 1813-1855)는 덴마크의 철학자 및 기독교 사상가다. 그는 1813년 5월 5일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일곱 형제의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1830년에 코펜하겐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아버지의 소원에 따라 신학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는 신학보다는 철학, 문학, 역사에 더욱 관심이 많았다. 그는 1848년 부활절에 그의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종교적(신비적) 체험을 했다. 이 체험 후에 쓴 종교적 작품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1849년)》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
쇠렌 키에르케고어 | 박병덕 역
비전북 | 272쪽

그의 사색을 일관하는 근본 문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기독교의 본질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절대적 차이에 두고서, 신앙이란 이성으로는 다다르지 못하는 역설(패러독스·Paradox)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사상은 칼 바르트(Karl Barth)의 변증법적 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849년에 발표한 《죽음에 이르는 병(Sygdommen til Døden)》은 그의 대표 저작이며, 부제는 '교회의 깨달음을 위한 그리스도교적인 심리학적 탐구'이다. 이 책의 주제는 '절망이 가진 본성과 의미'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저술하기 10년 전부터 그를 사로잡아 왔던 문제였다. 그는 "현대는 절망의 시대이다"고 쓰고 있다. 키에르케고어는 '코펜하겐의 소크라테스'였다. 그는 절망에 빠져 종교적으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진 사상가였다.

키에르케고어는 인간이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의 종합이요,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종합이라고 말한다. '자유와 필연의 종합'인 인간의 과제는 자기가 되는 데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신(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자기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된다는 것은 유한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한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실로 하나의 종합이기 때문이다.

그는 절망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형태는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것, 즉 자신을 제거하려는 데 있다. 그는 이것을 '연약함'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형태는 절망적으로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데 있다. 그는 이런 형태를 반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반항의 형태는 연약함의 형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연약함의 형태로 환원될 수 있다.

절망은 결국 사람의 연약함에서 기인한다. 연약함에 매여 있는 것이 바로 절망이다. 얽매임이 강할수록 절망도 깊어진다. 키에르케고어에 의하면 죄는 강화된 연약함 혹은 강화된 반항이며, 죄는 절망의 강화이다. 그러나 절망이 강화될수록, 즉 죄가 깊어질수록 역설적으로 구원의 가능성도 커진다. 왜냐하면 절망이 강화될수록 결단의 중요성에 대한 자기의 이해도가 깊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불행은 그리스도로 인해 넘어져, 계속해서 넘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마 11:6)"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의견도 갖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걸려 넘어짐이다.

가장 낮은 형태의 걸려 넘어짐은 그리스도의 문제 전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두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나는 그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을 작정이다. 나는 믿지 않지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 이것이 걸려 넘어짐의 형태라는 것을 대다수의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것이 걸려 넘어짐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의 의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가 현존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현존했다는 것은 모든 실존과 관련된 결단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어떤 의견도 가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걸려 넘어짐이 된다.

두 번째 형태의 걸려 넘어짐은 부정적이지만, 수동적인 형태를 띤다. 이 형태의 걸려 넘어짐은 그리스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낀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달리 바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고 믿을 수도 없다. 이 형태의 걸려 넘어짐은, "그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이 실제로 모든 물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물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교에 경의를 표하지만, 넘어진 사람은 그림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는 항상 이런 결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걸려 넘어짐의 마지막 형태는 적극적이다. 이 형태는 그리스도교를 비진리라고, 거짓이라고 선언한다. 이런 걸려 넘어짐은 그리스도교가 역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따라서 죄와 죄의 용서뿐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핵심 진리를 부정하게 된다. 키에르케고어에 의하면 이런 형태의 걸려 넘어짐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이고, 그리스도를 악마가 꾸며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이 형태의 걸려 넘어짐은 죄가 최고도로 강화된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표현으로서 예배를 받는 자와 드리는 자 사이에 무한한 질적 심연이 있다는 것을 확증한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키에르케고어의 저작 중 그 의도와 서술이 가장 알기 쉬운 책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으며, 대표작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인간의 심리를 깊이 통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인간에 대한 그의 관찰은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감명을 주는 부분이다.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불행, 죄보다 훨씬 더 큰 불행은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져서 계속해서 걸려 넘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하다. 성경은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활한 협잡꾼 패거리이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순간, 즉시 그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척한다." -쇠렌 키에르케고어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세포, 뼈, 피부, 동작으로 느끼는 하나님 사랑의 손길

기능적 존재로서의 교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필립 얀시, 폴 브랜드
생명의말씀사 | 286쪽

본서는 폴 브랜드와 필립 얀시의 공저로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필립 얀시는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된다. 도대체 왜 필립 얀시가 공저자로 소개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상상에 맡기는 듯하다.

그 이유는 본서 전체의 이야기는 한센병 의사 폴 브랜드의 이야기로 구성돼 있고,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글을 써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신비는 본서를 통해 우리의 인체가 얼마나 신비로운가를 느끼게 해 준다는 점이다. 세포, 뼈, 피부 등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수행해 내고, 그 몸의 주인이 되는 자각과 인지가 한 번도 알아주지도 알아줄 수도 없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충실히 자신의 일들을 수행해 냄으로써 그 몸의 생명이 유지될 뿐 아니라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우리 1분 1초의 삶이 바로 이들의 보이지도 알 수도 없는 신비로운 헌신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종종 우리는 교회를 유기체라 표현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는 현재 현실과는 동떨어진 독립체가 되어 버렸다. 또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하는 능력이 더 발달되어 있다. 더욱이 교회를 유기체라고 부르면서 마치 자신이 다니는 개교회에 한해서만 유기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칭할 때, 개교회를 두고 지칭한 적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개교회가 아니라 보편교회를 지칭하고 있으며, 나아가 현대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우주창조를 하나님의 성전창조로까지 보고 있다. 즉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유기체 개념이 과연 성경적 개념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본서의 저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까지 접근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말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저자들은 절대 교회라는 단어,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몸의 기능들을 설명해 가면서 우리 인간(성도)들이 모인 조직(유기체)이 어떤 유기적 기능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저자들은 유기체를 개교회가 아닌 보편적(우주적)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본서는 '기능'을 말하고 있다(그동안 그리스도교는 존재에 집착하다시피 했다. 아마도 결정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의 영향이 클 것이다). 현재 나는 '존재'와 '기능'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그러나 현실은 존재의 신학이 모든 그리스도교 신론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물론 헤겔의 변증적 합의에 100%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마치 길이를 재는 단위와 방식이 무게를 재는 단위와 방식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처럼, 존재와 기능 중 어느 하나가 상대를 흡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굳이 어느 하나가 흡수 통합하려고 할 필요 또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그리스도교는 '기능(행위)'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며(기능적 신관이 본래 히브리 신관이었다), 본서가 기능을 통해 존재를 말하고 있는 점에서 현재 한국교회가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한다.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샵
고려대 안암병원내 샵
입점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성 3.5 | 6.0 | 7.0 | 8.5 | 9.0 | 9.5 | 10 셀라케어 알카리성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초대교회 중심의 자녀교육 토브 세미나

내 아이를 과연 잘 키우고 있는 것일까?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특히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머리가 지끈합니다.
외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부모이면 누구나 공감합니다.

교육전문가 권창규 박사와 함께 초대교회 중심의 자녀교육의 원리와 대안을 성경적으로 찾아가는 귀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에 목마름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초대교회 중심의 자녀교육 토브 세미나"** 에 초청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결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2017. 10. 13 (금) - 15 (주일)

(금) 8:00PM / 2천년동안 다음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은 초대교회 비밀 (신 6:4-9, 스 7:10)
(토) 9:30AM - 5:30PM / 토브 교육세미나 & 질의 응답 (3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일) 5:00PM / 자식농사 주 안에서 된다 (창 18:18-19, 스 7:10, 마 28:18-20)

강사소개

권창규 박사

현재 코헨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이며 가정교육과 교회교육 전문기관인 토브미션 대표이다.
좋은가족교회(대구,용인) 담임목사, 유니스국제학교 교장, 미국 테필린아카데미 소장으로 섬기고 있다.
침신대 M.Div.와 코헨대학교 기독교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자식농사 주안에서 내맘대로 된다>
<3년 동안 4천 구절 암송의 비밀> 등이 있다.

등록비 : $ 50.00 (등록전화 : 714-634-8360)

장소 : UBM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주최 : The Uttering "HAGGADA (학가다)"
문의 : 성수진 전도사 (626-993-5353)